

# 일본 청소년 출판 활성화

글\_ 백원근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른들은 미래의 희망인 10대가 영상물과 게임에 빠져 책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일본 역시 그렇다. 그다지 많은 책을 읽지도 않는 어른들의 기우처럼, 과연 '아이들이 문제' 인지는 숫자로 따져볼 문제이다.

마이니치신문이 매년 조사하는 2005년 <독서여론조사> 및 <학교독서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생들이 한 달에 읽은 도서(교과서, 만화, 잡지 등 제외) 평균 권수는 중학생 2.9권, 고등학생 1.6권 정도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독서량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적으로 고등학생들의 독서량이 낮다고 하지만 성인들의 월평균 독서량 1.5권(단행본 0.8권, 문고·신서 0.6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청소년들의 독서경향과 출판 트렌드는 어떨까. 최근 이에 대한 흥미 있는 특집 기사가 일본의 <출판월보>(출판과학연구소, 2006년 10월호)에 실려 소개한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 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10대 인구는 올해 1,248만 명으로 20년 전에 비해 34%(655만 명)나 감소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 감소와는 반대로 '영 어덜트'(Young Adult; 청소년) 출판시장은 1998년 이래로 지속적인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10대 독자는 일반적으로 아동서에서 일반도서(성인도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독자층으로서, 방황하는 청소년기가 그런 것처럼 출판에서도 학습참고서를 빼고는 뚜렷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해 왔었다. 그래서 아동서 출판사의 신간은 아동서 코너로, 일반서 출판사의 신간은 또 그쪽으로 애매하게 진열되는 경우가 많아 책과 독자 모두 '미야' 신세가 되기 일쑤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청소년출판 시장에서 독자들이



청소년층의 폭발적 지지를 받으며 현재 종합 베스트셀러 최상위권에 올라 있는 소설 <恋空> 상하권.

읽는 책은 무엇일까. 2006년 9월 기준으로 많이 팔린 책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이른바 '휴대폰소설'과 판타지소설, 아동문고 등의 인기 작가 시리즈물이 태반이다. 10대들은 '어떤 책이 재미있다'는 또래의 구전정보를 주요 정보원으로 삼아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매우 엄선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학교독서조사> 결과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돌발 변수인 <해리 포터>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독서경향에서 남자 중학생들은 <삼국지>와 코난 도일 등의 탐정물이 꾸준히 인기를 누리며 예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중학생 시절에서 탈피하지 못한 1학년과 베스트셀러를 선호하는 2학년을 거쳐 험난한 수험생의 통과의를 거쳐야 하는 3학년이 되면 독서율은 급전직하한다. 만화 스타일의 가벼운 오락성 읽을거리인 '라이트소설' 독자층만이 명맥을 유지한다. 즉 남학생들은 고교에 진학하면서 학구파와 라이트소설에 빠지는 오타쿠족(마니아)으로 양분된다.

## 출판 동향

청소년문고의 대다수는 흔히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일러스트를 표지와 본문 삽화로 이용한다. 대체로 30개 가까운 문고 시리즈가 발행되고 있으며 13~19세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읽을만한 목록이 상당수 들어 있다. 이 가운데 소년문고의 주류는 역시 라이트소설이다. 장기적인 인기를 누리는 시리즈 중심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의 역량에 따라 신작의 판매가 좌우될 정도이다. 이에 비해 소녀문고는 핑크빛 사

랑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문고의 독자층은 10대에 머무르지 않고 20대 이상으로도 확장되어 성인독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신서판 사이즈의 문고본은 싸고 간편한데다 초중고의 아침독서운동이 정착되면서 발행종수(연간 300종)는 지난 3년 사이 2배나 늘었다. 초등 분야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것은 고단샤(講談社)가 발행하는 '아오이토리 문고' 시리즈인데, 구전효과가 크다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 팬 사이트까지 개설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기 작가들의 경우 초판을 10만 부나 발행한다. 이 시리즈를 졸업하는 독자들을 위해 고단샤는 'YA! 엔터테인먼트'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아동서의 연장 노선으로 청소년도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출판사 중의 하나가 포플러(포푸라)사이다. 1999년에 25만 부 판매로 화제가 됐던 《17세》의 독자 분석을 한 출판사측은 소설을 싫어하는 10대들이라 해도 동년배를 그린 논픽션에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분야를 천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살아 있습니다 15세》(45만 부), 《씨 뿌리는 아이들》(45만 부), 《푸른 하늘》(50만 부) 등 히트작들을 쏟아내고 있다.

### 청소년출판의 희망

독서와 담을 쌓고 지내던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읽을거리로 등장한 것이 휴대폰소설이다.

이들테면 이 분야의 선구자격인 《Deep Love》를 펴냈던 스타츠출판의 올해 10월 신간 《戀空》은 저자가 신인임에도 발매 2주 만에 89만 부나 팔리며 기염을 토했다. 완성도나 문장력은 떨어지지만 10대들만의 생각과 고민을 추체험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쉬우면서도 알찬 내용, 화려한 표지, 큰 활자와 넓은 행간, 고급 용지를 활용해 청소년과 성인 독자층이 아울러 읽을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편집 방식도 이 분야의 독자층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10대의 출판시장을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YA출판회'이다. 1979년 청소년출판 분야 출판사

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이 단체는 매년 발행하던 <청소년도서 총목록>에 더해 2000년부터 <YA 아침독서 북가이드>를 만들어 전국 학교에 배포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공공도서관 및 서점의 청소년도서 서가 만들기에 주력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출판계의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사회적 독서운동이다. 학교의 아침독서운동을 필두로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운동, 출판·서점계가 끊임없이 벌이는 동화구연 행사, 국가 차원의 '어린이 독서의 해'(2000년),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 시행(2001년),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신5개년계획'에 의한 지방교부세 보조(1993~1997년 500억 엔, 2002~2006년 650억 엔) 등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사서교사 배치도 늘면서 학교도서관 장서가 질적으로도 충실해졌다. 학교도서관의 조사학습용 세트상품에 머물지 않고 각종 소설류까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출판이 활성화되면서 출판사와 기성 작가들의 관심 역시 대폭 높아졌다. 12월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오가와 요코 등 유명 작가들의 자작 선정 단편을 엮은 《처음 읽는 문학》(분케이슌쥬, 전12권)이 발행되고, 내년 3월에는 이름값 하는 작가들이 참여하는 《미스터리 YA》(리론샤) 시리즈 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일본의 청소년출판은 본격적인 케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 사회는 논술과 평가를 위한 강제적이고 박제화된 독서의 효용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미래의 꿈과 용기, 즐거움과 지혜를 안겨주는 책 읽기 환

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평생독서의 단초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반성하고 고민해야 한다. 



▲포플러사의 청소년소설 시리즈(15권)